

당 선 사 례

안녕하세요.

2015학년도 연세대학교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의 회장 정혜윤
(철학 3), 부회장 김다흰(문화인류학 4) 인사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선거 운동 기간은 매우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오랜 시간 고민해온 것들을 학우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지금 학내에는 총여학생회를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총여학생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총여학생회가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한다,

“ 남학생에게도 총여학생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는 등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근저에는

연세대에서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세학우들과 함께 총여학생회가 왜 필요한 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총여학생회는 엄중했던 1980년대,
학내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성폭력, 성차별, 그리고 여성에게 강요되는
성별 규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학우들과
총여학생회가 함께 노력하고 공감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었습니다.(어떤 문제들이 개선됐는지 ???)

물론 학내에서 15%남짓이던 여학생의 비율이 40%를 웃도는 지금,
여학생이 숫적으로,사회적으로 소수자가 아니고 충분히 남녀가 평등하
기 때문에 총여학생회가 꼭 있어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내에서,강의실에서,과 공동체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학생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나 공동체 안에서 관계
를 맺을 때 성별 규범에 충실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민하게 성찰하고 공감하고
나아가 때로는 이런 문제를 숨기려고만 하는 학교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총여학생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에게 강요되는 성별규범이나 여학생에게 행해지는 성적 차별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규범은 남학생에게도 요구됩니다. 성폭력의 피해 대상 역시 여학생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의 총여학생회가 예민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학내에서 자신의 소수자성으로 인해 장애학생이나 성소수자 학생이 겪게 되는 불편함 역시 총여학생회가 예민하게 살펴 봐야합니다.

이동권이나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장애 학생의 문제,
강의실과 공동체 내에서 혐오 발언을 듣고 불편해하는
성소수자 학생이 겪는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한,연세대학교가 '모두에게 평등하고 행복한' 공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과방, 동아리방 등 학내 자치공간에서 남성 중심적 질서가 작동하거나 성적 대상화가 발생할 때, 여학생들의 활동과 휴식이 불편해지고 성폭

력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여자휴게실로
여학생들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히 휴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휴식할 권리에 둔감한 학교의 방침은 학내에
여자 휴게실만을 남겨두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이른바
역차별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휴게공간의 문제에서는
오히려 수적으로 다수인 남학생이 소수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학생에게 보장된 휴게실을 남학생에게는 보장하지 않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구성원을 위한 휴게공
간이 부족하다는 맥락에서 저희는 휴게공간 확충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희는 총여학생회가 학내의 성차별과 폭력 문제, 그리고 아직도 캠퍼
스 내에서 존재하는 소수자성에 대한 차별을 직시할 때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5일부터 새로운 총여학생회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다양한 활동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총여학생회가 연세 학우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에 보다 확실히 다가
설 수 있음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시 봄>이라는 이름은 총여학생회가 처음 생길 때의 맥락과 달라진 학내의 지형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혹은 '당연하게' 바라보고, 별다른 문제의식을 품지 않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 캠퍼스에 다시, 모두에게 따뜻한 봄을 불러오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봄>은 반성폭력을 다시 봄니다.

<다시 봄>은 국제캠퍼스를 다시 봄니다.

<다시 봄>은 성평등한 문화를 다시 봄니다.

<다시 봄>은 차별 없는 캠퍼스를 다시 봄니다.

<다시 봄>은 무엇보다 남녀를 떠나 연세학우를 다시 봄니다.

2주 간의 짧은 선거 운동 기간에 저희의 고민들이 다 전달되지는 못했을지라도 많은 부분을 알아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토론회 다음 날 유세를 돌면서 만난 많은 학우분들이 한 분 한 분 지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주변에 투표를 독려했다는 학우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남학우분은 여성주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선거를 꾸려가면서 지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렇게 지지를 전해주신 학우 분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니다. 그 힘으로 선거를 무사히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봄>은 투표율 55.7%(4438명) 찬성률 84.4%(3744명)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학생사회와 총여학생회의 중첩 속에서 이같은 지지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대표를 던진 학우의 의견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학우들의 의견도, 모두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고 가겠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들을 잊지 않고 그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소통하고 활동하는 총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통도, 변화도, 저희 힘만으로는 절대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연세 학우들이 계속해서 학생회와 총여학생회, 그리고 학생사회 전반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제26대 총여학생회

새롭게 피어나는 상상 <다시 봄>